

# 高級頭腦 集中養成에 英斷

故  
人  
의  
뜻  
따  
라

英材養成機關大幅擴張



趙 淳 卓

(理博 · 韓國科學院長)

우리 나라의 歷史에 偉大한 발자국을 남기고 不幸한 最後를 마친 故 朴大統領의 功過는 가까운 將來에 史家에 의하여 客觀的으로 整理評價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의 業績중에서 學問하고 關聯시켜서 빼놓지 못하는 일은 物質生活의 向上을 위한 高級 科學技術人材를 養成하기 위하여 그가 創設한 韓國科學院과 韓國의 精神文化를 啓發하기 위하여 一年前에 創立한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보여준 先見之明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1962~66 사이에 成功裡에 達成되어 輸入代替産業을 完成시킬 수가 있어서 가난에 찌들린 國民生活에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다음에, 第二次 五個年計劃을 國民所得을 높이기 위하여 輸出主導型의 經濟로 方向을 돌리게 되었는데 國際市場에서 商品을 競爭하기 위하여는 製造技術의 高度化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科學技術界의 元老들은 그 分野의 高級人力을 養成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當面問題라고 指摘하여 爲政者를 說得하려고 努力하였었다. 우리 나라의 科學技術은 旧韓末에 채 뿌리도 내리지 못한채 나라를 잃었고 日帝三十六年間에는 先覺者들에 의하여 散發的으로 힘을 길러보려는 눈물나는 努力이 있었지만 解放當時 이것들을 請算하여 보면 그 力量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으므로 建國과 同時에 새로히 始作할 수 밖에 없는 狀態였었다.

科學技術로 富強한 나라를 길러가자는 큰 意慾이 六·二五의 戰禍로 挫折된 뒤에는 國家에는 科學技術에 投資할만한 財力이 없었고 또 社會에는 이것에 대한 必要性을 느끼게 할만한 産業基磐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왔다. 다만 現代國家에는 大學이 있어야 하고 大學에서 科學技術의 分野가 一定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先進國의 例 때문에 뚜렷한 目標를 세우지 못하고 微微한 教育投資로 名目만인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多幸하게도 國際的大勢의 影響으로 資質이 優秀한 學生이 이 分野에 모였으며 教授들은 獻身的으로 知識을 傳達하였기 때

문에 이와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일부가 美国을 爲始한 先進國의 學界와 産業界에 進出하여 頭角을 나타내는 例가 不少하였다.

第一, 第二의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成功은 国力에 科學技術에 投資할수 있는 餘裕를 가져다 주었고 輸出主導型의 産業을 建設하게 되면서 앞으로 高級科學技術人力의 需要를 내다 볼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지 않는 国力의 餘裕를 全體의 大學에 고루 나누어서 얻을 수 있는 教育效果하고 이것을 작은 하나의 機關에 集中시켜서 우리가 갖는 可能性을 試驗해 본다는 데는 서로 意見이 갈라질수 밖에 없었는데 그중 後者를 挾한것이 故 朴大統領의 英斷이었으며, 이것이 옳은 判斷이었다는 것은 後世에 가드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韓國科學院이 創立된 動機가 되는데 그분의 생각은 이 機關의 起工式에서 한 致辭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科學技術의 人材養成을 外國에 依存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여기에 힘을 기우린 段階에 왔다고 믿습니다. 韓國科學院은 海外에 나가있는 有能한 우리의 科學頭腦를 데려다가 教授陣을 構成하며, 人材養成에 있어서 外國의 어느 理工系大學에 比해도 遜色이 없는 世界의 水準의 大學院의 機能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現代의 科學技術은 人間이 만들어 놓은 가장 複雜하고 廣大한 知的體系이므로 이 分野에서 一生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도 그 輪廓을 明確하게 把握하기는 쉬운일이 아니어서 서로다른 많은 見解가 나올수 있는 것이므로 政治指導者인 大統領께서 一國의 科學技術을 振興하기 위한 具體的인 方途를 期待할수는 없고 이런것을 專門家의 頭腦를 짜서 만들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 致辭는 當時의 우리의 現實에 立脚해서 생각할때 뚜렷한 指針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韓國科學院이 創立된 뒤에 여러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말자국 씩 成功을 위하여 前進한 過程에서 故 朴大統領이 계속하여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側近者를 통하여 듣게되었으나 直接

的인 言及은 위의 致辭를 빼놓고는 한적이 없다. 다만 間接的인 傳言이지만 그의 希望으로서 科學院에서 教育받고 나간 사람들이 專門知識과 함께 뚜렷한 國家意識을 가져주기를 되풀이하여 表明하였다고 한다. 專門知識을 國際水準으로 우리 나라에서 教育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直感하였음인지 數次에 걸쳐서 科學院을 訪問한 機會에도 教育內容에 干涉하는 言及은 없었고 작은 成功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支援에 不充分한 점이 없는가에만 걱정을 하였었다.

科學院은 學生에 대한 兵役과 獎學의 惠澤으로 資質이 가장 優秀한 者만을 選拔할수있었고, 教授로서는 海外에서 研究에 惠念하고 있던 사람들을 바로 移植시킬수 있었으며, 研究支援은 주어진 條件下에서는 가장 柔軟한 制度를 獨自的으로 開發해감으로써 國際水準의 理工系大學院으로 暫次로 接近할수있게 되어가고 있다. 윗 致辭에서 海外에 나가 있는 有能한 우리의 科學頭腦를 誘致하도록 말하고 있는 점은 첫째로 後進國에서 先進國으로의 頭腦流出의 傾向에 逆流를 試圖해본다는 점이 있겠으나, 둘째는 國內의 大學이나 研究機關안에서 人材流動에 대한 混亂을 없게하자는 理由도 있었고 세째는 先進國에서 進行하고 있는 研究중 可能한것을 그대로 移植시켜 보려는 意圖도 있었다. 우리 나라 事情으로 許容된 最善의 條件으로 運營하게된 科學院이 始終一貫하여 가지고 있는 念願은 國際水準의 理工系大學院教育을 이 땅에서도 實行할수 있다는 것을 證明함으로써 그것이 國內의 모든 大學院에 波及되어 教育條件을 改善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科學院에서 最初의 碩士를 輩出한 1975年 初까지만도 産業界에서 碩士學位에 대한 評價는 좋지 않아서 學士學位所持者하고 同等하게 取扱하고 있었다. 産業界가 내세운 理由는 優秀한 者는 學士學位만으로도 就職을 할수있는데 거기에서 落伍된 者가 大學院 二年間에 再修하여 學力을 補充하여 온 것이므로 同等하게 取扱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였다. 科学院의 最初碩士는 産業界가 가졌던 이와같은 認識을 바꾸게하여 碩士學位 所持者를 學士보다 二年 또는 三年以上의 經歷을 加算시켰으며, 이것 만으로도 國內의 많은 大学院에게 蘇生할수 있는 機會를 가져다 주었다고 할수있다. 充實한 講義, 集中的 學位論文 研究는 學生들을 急激하게 成長시켜서, 學士와 碩士를 確然하게 区分시킬수 있다는 科学院의 經驗은 不知中에 모든 理工系大学院이 그것을 같이하고 있는 段階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理工系大学院 教育을 改善하는데 嚮導的 役割을 한다는 目的이 達成되어가고 있는 現在 科学院은 科學技術을 土着化한다는 또 하나의 어려운 課題에 挑戰하고 있다. 科學技術을 學問的으로 土着化한다는 것은 어떤 작은 分野가 될지라도 國際水準에 損色이 없는 研究를 할수있고 그 研究를 통하여 論文이 國際學界에서 認定되는 博士를 輩出할 수 있을 때 可能하다고 본다. 現在 科学院은 教育方向을 漸進的으로 바꾸어서 博士養成을 爲主로 하는 大学院이 될수 있도록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미 數個의 研究室은 國際水準의 研究를 하는데 큰 支障이 없을 만큼 成長되어있으며 國際的으로 權威있는 學者들의 來訪도 잦아서 次次로 國際學界하고 呼吸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科学院이 내세운 또 다른 基本方向은 産業協同의 推進과 研究開發人材를 産業界에 供給하는것인데, 科学院이 갖는 研究力량의 增加는 벌써 産業界의 注目을 끌어서 도움을 받겠다는 産

業界의 受托研究가 날이 갈수록 增加하고 있으며, 産業界의 研究開發人材는 그들이 教育費一切를 負擔한 産業制學生에 대한 要求가 많아지면서 스스로 解決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産業이 最近에 急激하게 高度化되어 가는데 따라서 이때까지 高級人力의 必要性을 내다보지 못하였던 人士들 중에서 大統領의 先見之明을 生前의 그분앞에서 讚揚할적에 大統領은 언제나 말없이 微笑만 지었다고 한다. 앞으로 다가올 高級의 科學技術人力에 대한 需要를 現存한 科学院의 施設만으로는 充足시킬수 없다는 判斷에서 科学院의 大幅的인 擴張과 함께 一般大学院의 內実도 大統領의 意中을 알아차린 政策決政者들에게 의하여 着着 進行中에 있다. 科學技術이란 廣大하고 複雜한 樣相을 그 안에 包含하고 있어서 大統領의 行動哲學중 主要한 点이라고 할수있는 「하면 된다」는 信念만 가지고도 크게 成功할수 있는 部門이 있는가 하면 着實하고 体系的인 努力없이 는 아무리 큰 意慾을 가졌어도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70 또는 80%의 科學技術이 「하면 된다」는 信念으로 相當한 成果를 거둘수 있다고는 믿고 있지만 나머지 30 또는 20%가 사람몸에 比喩한다면 눈이나 頭腦에 該當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날 大統領이 韓國科学院에 가졌던 關心을 되돌아 생각할적에 그가 이와같은 關係에 올바른 認識을 하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大統領께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이 앞으로 크게 發展할수 있는 土臺를 만들어 논데 敬意를 표하면서 그의 不幸한 最後에 追悼하는 바이다.